

# 제 63 호

서기 1999년(단기4332년)1월25일(월)발행  
 서기 197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 2244-3717  
 FAX: (02) 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수단비온라인: 국민은행 356-01-0011-568    예금주: 안동김씨대중회

## 新年辭



希望의 1999年 새해를 맞이하여 國內外 安東金氏宗親 여러분의 高堂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祈願합니다.

도리켜 보건대, 지난 戊寅年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유래 없는 크나큰 역경의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宗親들께서는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해 나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中始祖이신 忠烈公(諱方慶) 할아버님의 後裔로서 그 子孫中 出衆한 15派의 後孫들이 永久不滅하게 派祖를 모시며 또 各分野에서 國家와 社會를 위하여 이바지하고 있는 發展上은 實로 憧憬하는 바이며 더구나 大宗會 任員들을 비롯하여 各派 任員들이 爲先事業에 盡力하고 있는 崇祖睦族의 透徹한 精神에 滿空의 敬意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體系아래서 祖上님을 위하여 前進 또 前進하는 實績은 今年 새해에도 遺憾없이 이룩하도록 念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大衆회에서 營爲한 사업을 回顧하여 볼 때 陵洞 忠烈公齋舍上梁文과 齋舍建立에 獻誠해 주신 宗親들의 人名錄을 木刻板으로 彫刻하여 揭示하였으며 檜谷洞管理舍의 窓戶를 近代式 알루미늄 새시로 改造하여 겨울나기에 適宜하게 修理했으며 특히 陵洞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훌륭한 우리 宗親의 힘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하여 금년 봄에는 포장공사가 마무리된다 합니다. 다음으로 會員名簿(花樹錄) 發刊 事業을 承認받아 推進하여

收單接受를 하고 있으며, 忠烈公 할아버님 傳記原稿를 서울大學校 朴宰佑 教授에게 依頼하여 原稿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회원 명부(화수록) 발간사업은 당초 98년말로 收單을 마감하여 今年 總會때 분질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해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手단 접수가 미진하여 만 부득이 금년 봄까지 手단접수 기간을 연장치 않을 수 없으므로 諒知하시고 隣近宗親間의 相互 권유와 協력으로 많은 宗親들이 수락되도록 特단의 協力を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大衆회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온 宗親들의 빠짐없는 參與가 있을 때 萬姓가운데 巨家大族의 面貌가 손상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宗親여러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會館도 대대적인 補修도 해야 되겠으며 陵洞齋閣도 기와를 갈아입혀야 할 형편이며 또한 齋閣앞에 駐車場도 마련하여 參拜오는 宗親들의 안전을 도모케 함이며, 이러한 일들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때 崇祖尚門의 位相도 確固히 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차질 없이 實行하려면 오직 宗親諸賢들의 熱誠있는 參與가 있을 때 모든 일이 원만히 成事되리라 믿습니다. 國內外 宗親여러분!

希望찬 새해에 宗親들 各家庭에 더욱 幸運이 깃드시길 祈願하면서 新年人事에 가름합니다.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相勳 白

## 中始祖 忠烈公 考妣位 時祭奉享

지난 11월 27일 경향 각지에서 200여 후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時祭를 봉향하였다.

충렬공 할아버님 향사는 전날 경향 각지 후손들이 齋舍內에서 宿食을 하고 아침 9시에 할아버님 향사를 올리고 간단한 음복례를 마친 다음 대기시킨 버스로 豐山읍 회곡동에 모셔 있는 竹州 朴氏 할머님 壇所에 가서 향사를 올리고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로 安東역에 나와 해산했다. 이에 시제를 받든 獻官 및 執事者의 分榜을 참석한 각파 회장과 원로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를 갖추고 분방을 하는데 올해는 회장님이 유고한 관계로 總務부장이 주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방을 하였다.

忠烈公 할아버님 향사에 初獻官 提學公派 相煥氏, 亞獻官은 按廉使公派 在鶴氏, 終獻官은 翼元公派 熙默氏, 陳說에 翼元公派 度植, 祝官에 在鎬, 贊者는 滢秀, 謁者는 先會, 贊引은 章秀, 奉香은 應會, 奉爐는 潤秀, 司奠은 漢默, 奉酌은 在信, 奠酌은 在均, 時到는 東洙 宗親들을 분방하였으며 회곡동 할머님 향사 初獻官은 翼元公派에 俊會氏, 亞獻官은 都評議公派에 熙璟氏, 終獻官은 密直司使公派 在英氏를 분방하여 헌작케하고 執事者는 總務公 向사 집사자가 맡아 하기로 분방을하여 향사를 올렸다. 금년에는 우친 관계로 묘정에서 향사를 못 올리고 할아버님 影幀閣에서, 할머님은 齋舍에서 향사를 올렸다.

## 忠烈公傳記資料蒐集

지난 1998년 10월 會報에서 회원 명부 발간에 즈음하여 회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중시조님의 傳記發刊 原稿를 서울대학교 朴宰佑 教授님에게 의뢰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現在 원고를 차근차근 작성 중이며 앞으로 훌륭한 傳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만능이 될 수는 없는 일임으로 그동안 우리 할아버님의 業績이 모든 文獻에 밝게 밝혀진 바 크지만 그래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여 宗親들께서 수집된 문헌과 고증될만한 사료가 있으시면 大衆회로 송달 해 주시면 朴教授에게 전달하여 원고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전국 宗親들께서는 주저없이 자료수집에 協力해 주시길 간망하는 바입니다. 편집부

## 公 告

1998년 7월 1일자 공고한 회원명부발간 手단마감을 1999년 5월 말일까지 연장함을 공고하오니 手단 업무에 차질없길 바라오며 각파 회장님과 手단업무를 맡아 주신 宗親들께서는 배전의 協력을 해주시길 望망합니다.

수단기간연장마감 1999년 5월 31일까지

1999. 1. 25.

安東金氏大宗會 會員名簿發刊推進委員會 會長 金相勳

## 謹 賀 新 年

### 顧問

- 泰倫 密直司使公派
- 載鴻 郡事公派
- 在哲 郡事公派
- 元會 郡事公派
- 東哲 副事公派
- 在洪 文溫公派
- 在龍 文溫公派
- 在應 文溫公派
- 學默 文溫公派
- 在承 文溫公派
- 用秀 都評議公派
- 泰祚 都評議公派
- 相煜 提學公派

### 相蒙

- 在華 按廉使公派
- 思興 按廉使公派
- 元卿 按廉使公派
- 好振 按廉使公派
- 在基 按廉使公派
- 在元 翼元公派
- 在憲 翼元公派
- 在局 翼元公派
- 吉成 翼元公派
- 璨會 翼元公派
- 明燮 翼元公派
- 信 翼元公派
- 明會 翼元公派

### 秉默

- 本部任員
- 泰亨 翼元公派
- 相勳 提學公派
- 相祺 提學公派
- 斗會 按廉使公派
- 容學 翼元公派
- 洙栢 翼元公派
- 榮國 文溫公派
- 執行部
- 命會 翼元公派
- 孫閔順 密陽人
- 各派會長
- 惠默 密直司使公派

- 昌麟 開城尹公派
- 在錫 郡事公派
- 根成 典書公派
- 在殷 副事公派
- 琮會 文溫公派
- 在煥 安靖公派
- 聲秀 都評議公派
- 在權 大護軍公派
- 鶴應 提學公派
- 章會 按廉使公派
- 璨會 翼元公派
- 噉永 書雲觀正公派
- 允會 正儀公派
- 理事
- 炳錄 密直司使公派
- 相國 開城尹公派
- 潤洙 郡事公派
- 世鏞 郡事公派

- 承會 典書公派
- 圭恒 副事公派
- 光道 文溫公派
- 鶴秀 都評議公派
- 廷秀 都評議公派
- 鳳會 都評議公派
- 相會 大護軍公派
- 得榮 提學公派
- 相喆 提學公派
- 泰燮 提學公派
- 圭馨 提學公派
- 道演 按廉使公派
- 在澤 按廉使公派
- 演玉 按廉使公派
- 昌會 按廉使公派

- 中鉉 按廉使公派
- 聖會 按廉使公派
- 在均 按廉使公派
- 榮俊 翼元公派
- 在起 翼元公派
- 在溶 翼元公派
- 俊會 翼元公派
- 先會 翼元公派
- 在光 翼元公派
- 恒植 翼元公派
- 仁鐘 翼元公派
- 容世 翼元公派
- 元九 翼元公派
- 圭冕 書雲觀正公派
- 範植 正儀公派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相勳 謹拜

# 開城尹公 時祭奉享

지난 10월 11일 개성윤공 시제를 후손 3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奉享하였다. 상식 종친의 執禮로 초헌관은 鳳來會長, 아헌관에 회민씨, 종헌관은 세영씨가 헌작 하였으며 대축은 회복씨가 독축하여 향사를 마치고 곧 이어 總會를 개최하였는데 相國씨께서 재정결산을 한 후 회장 선임이 있었다. 그 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봉래회장이 가사로 인하여 사임을 하고 昌麟씨를 會長으로 추대하여 종친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 이를 수락하였고, 이어서 감사패 수여와 효부 표창이 있었다. 효부표창을 받은 사람은 창린씨의 子婦 오선화 여사와 상위

씨의 자부 송은미 여사에게 부모에 효도하고 승조 이념이 투철하여 매년 시제준비에 정성을 다 하며, 자녀 교육에도 성실히 하여 집안 화목을 이루어 인근의 칭송이 자자한 고로 효부 표창을 한다 하였다.

이어서 감사패는 지난 수해시 壇墓쇄신이 있어 복원공사를 하는데 몰심양면으로 솔선 수범한 총무 泰福氏에게 대종회장 명의로 격려와 아울러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임 회장의 간단한 인사로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호 정담을 나누며 화목을 다지고 하오 2시경 해산하였다.

# 文溫公 時祭奉享



지난 11월 11일 음 10월 1일 포천군 창수면 금수정역내에 문온공의 조부 良簡公 諱承澤 考 上洛君 諱昂 文溫公 諱九容 三世의 壇墓를 設壇하여 配享한다. 이 날 전북지역에서는 在承회장을 비롯 40여 남 녀노소 종친들이 버스편으로 참례하고 각 지역에서 참례한 50여 명 등 100여 후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시제를 봉향하였다. 이 날 헌관은, 초헌관에 문온공과 회장 在承씨가, 아헌은 琮會씨가, 종헌은 대종회 총무부장 命會가 안양에서 참례한 在福씨의 집례로 헌작하고, 대축에는 영주에서 온 明會씨가 讀祝하여 향사를 엄숙히 올리고, 이어서 98년도 결산총회를 개최하여 재승회장의 인사에 이어 榮國 총무로부터 결산보고를 마치고 임원 개선에 들어가 회장을 선출하였다. 회장 재승씨가 琮會씨를 제창하여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하고 남은

임원은 종전대로 맡아 하기로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다.

준비된 점심 식사를 묘정에서 둘러 앉아 다정 다감히 식사를 하고 곧 자리를 옮겨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에 모셔 있는 문온공의 둘째 아들 奉正大夫 諱明理의 시제를 봉향하고 이어서 階下에 모셔 있는 議政府舍人 諱季友(奉正大夫의 셋째아들)과 舍人公의 둘째 아들 將仕郎公 諱自塾祖의 시제를 봉향하고 다음 날 경기도 광주에 모셔 있는 장사랑공의 넷째 아들 諱允文 손자 通政大夫右承旨 諱慎의 시제를 봉향하기 위하여 일부는 광주로 내려가고 전북에서 온 종친들과 그의 종친들은 현지에서 음복을 마친 다음 해산하였다.



# 貞簡公 領三司事公 按廉使公 時祭奉享

지난 11월 23일 음 10월 5일 충북 오창에서 정간공, 영삼사공, 안렴사공 三代 시제를 경향 각지에서 참례한 후손 150여 명이 엄숙히 봉향하였다. 이 날 시제는 안렴사공과, 익원공과, 서운관정공과 3 파에서 봉향하는데 큰집인 제학공과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참례한다.

임원진이 전일 재각에 모여 헌관 및 집사자를 분방하고 축을 댄다. 이 날 분방은 다음과 같다.

貞簡公 奉祀: 初獻官 按廉使公派 在華, 亞獻官 翼元公派 琪會, 終獻官 提學公派 學應, 執禮 按廉使公派 泰日, 大祝 按廉使公派 聖會.  
領三司事公 奉祀: 初獻官 按廉使公派 鎮熙, 亞獻官 書雲觀正公派

圭冕, 終獻官 按廉使公派 永植, 執禮 按廉使公派 泰日, 大祝 按廉使公派 貞會.

按廉使公 奉祀: 初獻官 按廉使公派 會長 章會, 亞獻官 按廉使公派 在鶴, 終獻官 按廉使公派 定會, 執禮 按廉使公派 洙萬, 大祝 按廉使公派 昌會.

이와 같이 분방하여 차례로 향사를 마치고 아래 묘정에서 간단한 제무 결산보고를 한 다음 정간공 영삼사공 양위분 단묘정화 사업을 의논하였는데 제정문제도 있지만 뒤의 바람이 좀더 바람에 씻기어 잔디를 입혀 살 수 있도록 삼 년 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아 삼 년 후로 미루고 2시경 해산하였다.

# 文英公 時祭奉享

지난 11월 25일 음 10월 7일 충렬공의 셋째아들 文英公 諱恂 時祭를 安養墓庭에서 100여 후손들이 參禮하여 엄숙히 봉향하였다. 이 날 향사는 提學公派,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等 四派에서 奉享하는데 안렴사공과 泰日씨의 執禮로, 초헌관은 제학공과회장 鶴應씨가, 아헌관은 안렴사공과 在澤

씨가, 종헌관은 익원공과 俊會씨가 헌작하고 大祝에는 翼元公派 翼會씨가 고축하였다. 향사를 마친 다음 98년도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道演씨께서 인사말을 한 다음 永默총무께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한 다음 齋閣에 내려가 점심식사를 한 후 하오 2시경 해산하였다.

# 密直司使公 時祭奉享

지난 11월 1일 밀직사사공 시제를 50여 후손이 참석하여 엄숙히 봉향하였다. 이 날 대종회 총무부장의 집례로 초헌관은 仲會종친이, 아헌관은 在沼종친이, 종헌관은 춘회종친의 헌작으로 향사를 봉향하였으며, 향사 봉향을 마치고 곧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應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장이 직접 그 동안의 경과 보고와 재무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동안은 총무도 없이 회장이 모든 일을 다 하였는데 앞으로는 총무를 선임하여 총무로 하여금

총무를 보도록 할 것이라며 在英씨를 총무로 지명하여 온 종인의 박수로 승인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향사 준비며 묘소관리 등 모든 일을 총무가 책임지고 해 줄 것과 시제 준비도 이제 종제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총회를 마치고 묘정에서 준비해 온 점심식사와 제수 음식을 같이 하여 음복과 겸하여 식사를 마치고 향사를 엄숙히 모신 훈훈한 마음으로 귀가길에 올랐다.

# 提學公 時祭奉享

지난 98년 음 10월 6일 제학공 후손 100여 명이 참례한 가운데 엄숙히 시제를 봉향하였다. 이 날 시제는 제학공의 조부 文肅公과 考 上洛伯公, 提學公 三位의 壇位를 設位하고 시제를 같은 날 봉향했는데 금년에는 시대의 흐름과 자손들의 참여를 권장키 위하여 제학공의 子 司諫公 諱顯와 孫 司憲

府監察 諱孟廉 曾孫 主簿公 諱哲勾 세분의 壇位를 增設하여 문숙공 이하 5대의 시향을 같이 봉향하였다.

이 날 헌관은, 초헌은 當家の 元老이신 昌奎종친이, 아헌은 尚默종친이 종헌은 안렴사공과 在澤종친이, 鶴應회장의 집례로 헌작하였고 大祝은 相喆현종께서 告祝하였다.

# 翼元公 時祭 盛大히 奉享

지난 11월 27일 음 10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익원공 諱士衡의 시제를 150여 후손들이 참례한 가운데 엄숙히 봉향하였다. 이 날 향사를 올리는데 분방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에 宗孫 晟會, 亞獻에 璨會 派會長이, 終獻官은 大宗會 斗會副

會長을 분방하여 容世 宗親의 執禮 享祀를 奉享하였다. 이 날 雨天관계로 墓庭祀를 行事치 못하고 洛甫齋 齋閣에서 봉행하였으며 이 날 익원공의 아드님 密直司使公 諱陞祖의 時祭를 익원공 시제 봉향 후에 봉행했다.

# 宗中 人物探究



여기 소개하는 松巖 榮得賢宗은 忠烈公 21代孫 郡事公 17代孫으로 落鄉祖 察訪公 諱堪의 9代孫이다.

松巖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촌락에서 考諱駿源과 妣密陽朴氏의 五男中 막내로 출생하여 원래 才能이 卓越하였으나 가정이 빈곤하여 학문을 연마치 못함이 한이 되던 중 주경야독하고 가솔을 올바르게 하며 교육에 연연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시켰으며 수신제가로 안동김씨의 명문가로 발돋움 하였다.

더욱이 충효사상과 승조정신이 투철하며 예의범절과 愛族隣保精神이 두터워 자수성가하여 8代祖 諱得亮이하 선대제위 분묘정화사업은 물론 타의 문화유적지의 중수사업에도 아낌없는 獻誠으로 武我書院 儒林色掌에 8년간을 재임하면서 중

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察訪公 諱堪祖가 配享된 松山祠가 高宗2년에 葺建되어 1954년 移建할 때 건축비를 헌성하여 복원한 다음 매년 春秋享祀에 안동김씨대표로 빠짐없이 참사하니 무아서원과 송산사의 주변 후손과 유림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이 공을 후세에 전승코자 院祀에 공적을 懸板하여 揭示하였다. 그 외에도 칠방공 齋舍修築에도 몰심양면으로 후원함은 물론 私畵 2000평을 칠방공 총회에 회사하여 중증 경조사에 경조토록 하였다. 이처럼 승조정신이 龜鑑이 되어 이번 총보에 紹介를 하는 바이다.

# 同樞公 諱宗淑先祖님 墓碑改豎 除幕

翼元公 士衡의 넷째 孫子이신 公은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와 正憲大夫議政府左贊成에 오르시고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上洛府院君을 追封하였다. 配位는 慶州李氏參判 良直女로 貞敬夫人이시다. 生四男을 두시니 그 첫째는 碩이며 世宗庚午文科佐翼佐理의 兩勳을 받으시고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로 上洛府院君을 封하였으리 諡文靖이다. 配位는 貞敬夫人 東萊鄭氏요, 둘째는 碩이며 成宗丁酉에 僉正登文科拜하여 兵曹參判至資憲大夫刑曹判書로 諡孝昭이며, 配位는 東萊鄭氏 子順의 女로 貞敬夫人이고, 셋째는 碩이며 通政麗州牧使 贈輔祚功臣領議政永嘉府院君이며, 配位는 贈貞敬夫人 順興安氏와 贈貞敬夫人 坡平尹氏며, 넷째는 碩이며 策靖國功臣至工曹判書豐讓君이며, 配位는 貞夫人 南陽洪氏와 尚州崔氏다. 이에 四兄弟 後孫이 경건히 奉塋 奉祀하여 왔으나 公께서 沒하신지 530여 年상이 흘러 當初建豎한 儀物이 風



磨로 衰盡지경이어서 후손들이 의견을 모아 改豎하기로 합의하여 지난 음 10월 5일 새 儀物을 建豎 除幕告由를 드리고 음 10월 10일 시제를 봉향함에 자손 모두가 숙원했던 일임으로 흐뭇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제 公께서 萬世 是安하시니 英靈께서는 후손들을 굽어

살피 주시리라 믿으며 이에 勞苦하신 익원공과 회장이며 종손이신 璨會賢宗을 비롯 동추공중중 회장 榮俊賢宗 同宗中 총무 在光賢宗 또 碑文을 정성껏 撰해 주신 俊會賢宗 儀物建豎工役을 맡아 준 尚默賢宗 그 외 勞苦하신 諸宗들의 지성을 높이 贊辭드립니다.

# 永慕堂 金先生 行狀

永慕堂의 諱는 質이며 字는 文素로 翼元公 諱士衡의 둘째 孫子 諱宗漢의 玄孫으로 孝行이 출천지 대효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른이시다. 公의 저서에는 永慕錄과 六事自責說의 저서가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을 못하여 각방으로 추신하던 중 뜻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으로부터 267년 전에 前參判인 포암 윤봉조가 지은 永慕堂 金先生의 行狀을 發見하여 너무도 기쁜 나머지 널리 알리고 싶어 유작시를 소개하는 바이다.

## 題目 竹院

一生天所命何物敢吾侵  
한평생 하늘이 명한바에 무엇이 나를 침노하라  
風月深已知江山亦許心  
풍월이 이미 깊이 알고 있고 강산도 마음으로 허락했네  
閑七聊自適役七更焉尋  
한가히 애오라지 자적커든 힘겹게 다시 무얼 찾을손가  
半畝園林不優遊日獨吟  
반畝園林不優遊日獨吟  
반묘의 동산이 있어 수풀 아래 노닐며 날로 혼자 시를 읊네  
竹院喧塵隔紫門車馬稀  
죽원에 세상 티끌 멀리하니 사립문 찾는 마차 드물더라  
詩書爲我伴身世與時違  
시서가 나를 위해 친구가 되니 세상 사이 한 몸과 멀어졌네  
歲月閑中去悲歡夢裏歸  
세월은 한가하게 지나가고 시비는 꿈속으로 사라졌네  
萱堂供白髮惟欲舞班衣  
어머님 흰 머리 이셨으니 아롱옷 바쳐입고 춤을 출까

위의 시문을 새로이 발견하니 잊혀졌던 문헌이 더 함은 물론 현재 고창군 공음면 道巖祠에 명나라 황제가 親筆사액한 孝懸板이 奉安되어 있다.  
이 글은 公의 15代孫인 滿吉賢宗이 提供하였다.

다. 이는 또 파란 만장한 생활가운데 제일 추억에 남는 것은 빈손으로 18세 어린 나이로 등짐 보행의 방랑생활이라 한다. 만년필 붓짐장사로 13개도 211개군을 매일 1개군씩 다닌 일과, 23세에 만주에 들어가 26세 되던 해 큰 돈을 만져본 일 등이 추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는 (4면에 계속)

# 都岩 金泰榮의 人生逆情과 慙悔

都岩 泰榮은 提學公 21代孫 派分祖 教官公 諱時進의 13代宗孫 諱璣應의 四男二女中 넷째 아들로 충남천안시 병천면 가천리 하백전에서 출생하여 목천초등학교를 수료하고 才藝가 뛰어 났으나 가세가 빈곤하여 진학을 못하였다. 방년 16세에 延安人 李六辰女史와 결혼을 하였으며 다음 해에 모친 杞溪俞氏께서 별세하심으로 앞날이 막막하여 고뇌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서야 하겠다는 충동이 생겨 어머니의 탈상도 못한 채 전도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없는 18세 소년기에 사회에 발을 내 디디었다. 21세 때 국립 대전 잠사연구소 7개월 특강생으로 입사하여 그 재질을 인정받아 기술관리로 임명을 받아 재직하였으나 일이 직성에 맞지 않아 23세 되던 해에 일본 대립건설회사 소속으로 만주에 들어가 제철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조국광복을 맞이하여 귀국케 되었다. 29세에 신건산업(주)를 창립하여 일을 해 오던 중 33세 때 6.25 전쟁이 일어나므로 잠시 고향 병

천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다. 33세 11월 서울 수복으로 서울에 올라가 다시 건설업을 시작하여 정부청사 3개처와 장차관 관사 12개동의 복구공사를 마치고 청와대 육각정보수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난데없는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후에 알고 본즉 공사관계로 업자들 난입으로 총무처 사건인 정치적 싸움에 표적이 되어 희생양이 된 셈이었다. 후에 무죄를 인정 받아 석방되어 다시 고향에 내려왔다. 한동안 쉬 뒤에 다시 병천에서 건설사를 창설하여 충남북 일원의 토건 사업을 하면서 백전문화원을 개설하여 초대 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병천면장을 역임하고 45세에 다시 대전 대동건설(주) 부사장으로 취임 태국으로 나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논산 육군훈련소 육국병원 신축공사와 대전 대덕 지구 도로 신설공사, 원자력 공단 부지 조성 공사, 전주 지방법원 검찰청 신축공사 등



국내외 큰 공사를 도맡아 한 건설업계의 거장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貧富苦甘의 체험을 다 하였고 사회 봉사 활동도 끊임없이 해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26세에서 28세까지 만주 본계호시 5축협화회 한국측 보도위원을 역임했으며 40세에 천안 병천 栢田文化院長, 병천 농업협동조합장, 대전 중촌동 노인회장, 70세에서 현재까지 안동김씨 대전지구 종친회장을 맡아왔다. 그의 전성기에는 사회공동체에 많은 협찬을 한 일이다. 그 가운데는 고향 선영하에 영모재 신축사업에 현시가 쌀 40가마 상당을 협찬하였고 병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신축비에 쌀 400가마 상당과 병천 면사무소 신축비 쌀 400가마, 병천 소방서 창고와 기구 구입비에 쌀 400가마를 협찬했으며 특히 만주 요령성 본계호시 태자하 한국인국민학교 4학년교실 신축비 쌀 1000가마 상당의 건축비를 협찬한 독지가이기도 하

#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印刷製冊까지唯一한綜合工場

컴퓨터組版으로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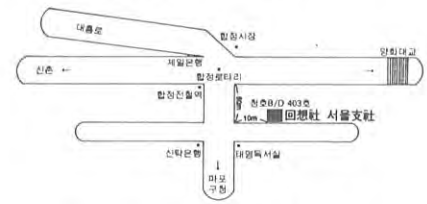
# 族譜出版의 元祖

##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發見하는 30餘年間 勤練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碩快 便宜提供

#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의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自선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3면에서 계속)

幸도 不幸도 많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사업 50년에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살아온 세월 어느덧 傘壽(80)을 넘으니 후회스러움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으며 이를 만분의 일이라도 참회키 위하여 거주지 대전에서 대전지역종친회 회장으로 10년간 있으면서 先世貫鄉巡禮를 하였다. 제일 먼저 경주 태보공 승해전과 계림비각을 시작으로 경순왕릉 참배, 충렬공 묘소 및 신도비각, 회곡동 죽주 박씨 할머니 단소와 유허비각, 강진에 판서공헌 문제학공 承用, 평리공厚묘소, 경기 광주 개성윤공 七霖, 충남 연기 析祖 사적비제막식, 안양 문영공 산소, 병천에 문숙공 상락백공 제학공 단소 참배, 오창 정간공 영삼사사공 단소, 안렴사공 묘소 참배, 경남 함양 익원공 영정각, 전북 고창 익원공 부조묘, 경기 포천 문정공 효소공 묘소, 충북 괴산 충무공 충민사, 경남 진주 시민창렬사, 서울 효창공원 백범선생묘소,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 시민어록비등 종친회원과 같이 춘추행사로 실천

하여왔다.

슬하에는 4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 政植은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에서 일본어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중앙일보 미국지사 편집국장 겸 지사장으로 있으며, 둘째 滿植은 충남대학과 연세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주미 시카고 총영사관 행정실장으로 있으며, 셋째 成植은 육군공병학교를 졸업 수송장교로 월남에 파병하여 소령으로 예편 현재 아세아시멘트 레미콘 공장 과장으로 있으며, 넷째 浣植은 한남대를 졸업하고 현재 충청은행 감사직에 재직하고 있으며, 孫容奭은 미국 UC어바인 대학과 남가주 대학 치과대를 졸업하였으며, 또 孫換은 미국 예일대학 UCLA 캘리포니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당교 조교수로 재직중이며 滿植의 자勳은 미국 허버드대학과 동 대학원 법과를 수료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 현재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孫智勇은 대덕 연구단지에서 기계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으니 泰榮宗親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냈으나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분으로 우리 문중의 인물이며 인생 80을 똑바르게 사신 분이라 믿는다.

### 통상회비 납입자

( '98.10.31 - '99.1.4 )

翼元公派 成목 석배 노수 운회 수대 정회 대진  
경중 상용 영옥 희석 대석 수완  
按廉使公派 영회 태준 홍경 상진 경준 진성 사득  
提學公派 재철 태용 원식 성희 수용 상필  
태응 기호 철호 인호 두응 장응  
명식  
密直司使公派 용금 仲會 병록 재국 용일  
文溫公派 재희 正默 철희 명희  
書雲觀正公派 : 규태  
郡事公派 : 재규  
正義公派 : 범식  
典書公派 : 홍희 宇會 재국  
都評議公派 명동 정길 熙龍 浩爽 泰丙 희경  
재홍  
副使公派 : 석조  
派未詳  
기현 상복 정영 원희 종년 태헌 성한  
재봉 형식 재학 수돈 태욱 후묵 재봉  
대동 용득 중영 재봉 내균 선진

計 1,380,000원

忠烈公享祀獻誠金 (1998.11.27)  
壹百萬圓 : 相勳 大宗會長  
壹拾萬圓  
翼元公派宗會 密直司使公派宗會  
文英公派宗會 按廉使公派宗會  
扶餘柳村宗契 郡事公派宗會  
坡州宗親會 開城尹公派宗會  
大邱宗親會  
泰亨(翼) 名譽會長 熙默(翼)  
五萬圓  
提學公派宗會 議政府宗親會  
安東市宗親會  
世泳(開) 容斗(提) 在龍(郡)  
泰三(按) 在鶴(按) 世默(郡)  
三萬圓  
東洙(翼) 鍾秀(都) 俊會(翼)  
海秀(都) 成植(翼)  
二萬圓  
相煥(提) 錫會(翼) 泰永(翼)  
在福(翼) 泰哲(翼) 在鎬(翼)  
先會(翼) 江默(翼) 浩爽(都)  
計 2,880,000원

평생회비 납부자  
吉成(翼) 200,000원  
해묵(按) 300,000원  
창희(翼) 200,000원  
鎮默(郡) 200,000원  
計 900,000원

### 宗中動靜

### 善行 宗親紹介



여기 소개하는 在德賢宗은 郡事公 19代孫이며 군사공 7대손 察訪公 諱權의 11대손으로 승조정신이 투철하여 喜壽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향조 찰방공의 齋閣 追遠齋 庭園 조경공사에 많은 조경수를 제공하여 조경사업을 훌륭히 이룩하였으며 察訪公 享祀에 씨달라고 天幕을 회사함으로 春享祭에 요긴하게 이용하므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 참뜻에 답하였다.

### 開城尹公派 會長에 昌麟賢宗

開城尹公派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시제를 올린뒤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개선을 하였는데 새 회장에 昌麟宗親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 文溫公派 會長에 琮會賢宗

文溫公派에서는 지난 음 10월 1일 시제날 派宗總會를 開催하여 새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現大宗會理事인 琮會賢宗이 문온공파 회장에 종인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취임하였다. 이에 예천향토지에도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소개를 하였고 편집부는 귀중의 회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泰麟賢宗 연세경영자상 수상

지난 98년 11월 18일 수요일 연세경영인의 밤 행사에서 三扶海運株式會社 會長 泰麟宗親께서 물류부문 제 18회 연세경영자상을 받았다. 泰麟宗親은 안렴사공 21代孫이며 98년 대중회총회시 宗旗를 기증해준 종친이다.

### 勳賢宗 國際 辯護士



提學公 23代孫 勳은 현재 미국 시카고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학공 15대손 諱時進의 宗孫家 막내 집. 泰榮宗親의 둘째 아들 滿植(現주미 시카고 총영사관 행정실장)의 둘째 아들로 초중학교 시절부터 머리가 좋아 미 일리노이주 과학 경기 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일등으로 입선하고 일리노이주립 수학과 과학 영재 고등학교에 수석졸업을 하고 하바드 대학을 특차로 입학하여 수석졸업과 동시에 국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하와이주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천재 종친이다.

### 在澤賢宗 전국서화에 술대전 운영위원 위촉

按廉使公 19代孫이며 現大宗會理事인 在澤賢宗께서는 지난 1998년 11월 27일 全國書畫藝術大典에서 개최한 書畫作品公募展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작품향상에 진력하였음을 인정받아 전국 서화예술대전 운영위원에 추대되었다.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 訂正

\*중보 62호 시제 일정표에 副使公을 福使公으로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역시 62호 2면 通常會費를 通商會費로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에 광각은 광옥, 중화는 중하, 준철은 璇喆, 준필은 璇弼로 바로 잡습니다.

### 電話番號 變更案内

大宗會 電話番號가 변경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당초 244-3717은 2244-3717로 FAX도 243-1073이 2243-1073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博士學位 取得



翼元公의 曾孫 牧使公 蹟의 18대손인 泰吾宗親은 日本廣島大學校에서 移動現象工學을 연구하여 1998년 3월 25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 公認會計士 合格



範洙 宗親은 1998년도 시행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에 축하를 드립니다.

### 1999年 月曆寄贈

大宗會理事이며 東瑞文化社 社長인 都評議公派 鳳會宗親은 每年大宗會 月曆을 제작 기증해 주는데 올해는 모든 기업이 어려운 해인데도 또다시 월력을 기증해 주심으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2호)

### 詩

씨앗

허리띠 움키며  
넌 게서 뿌린  
착한 씨앗이  
어둠고 차디찬  
빙하의 골짜기에 덩굴어  
꼭 가야만될 길을  
미처 못 깨우친 채  
얼마나 많은  
허공의 시간 속에  
말버둥 쳤던가!  
숨 가쁜 피와 땀방울  
수없이 뒤엉킨  
얼룩진 자욱 자욱은...  
넌이 가꾸던 푸른 꿈이 있기에  
저- 태양 기울면  
얼음 바위 녹아 내려  
굽이친 물 줄기  
강물 이루니  
훈훈한 바람결  
내 가슴속 깊이 마셔  
품어 토해 낼 때  
눈물진 씨앗은  
이제 막-  
싹이 트이고  
잎과 꽃이 아릅진  
향기 풍기는  
그 동산에  
새들도 날아 노래 부르며  
벌레들이 꿀을 날으는  
행복한 벼들의  
흙 냄새 고마움을  
넌 향해 기도 합니다.

익원공파 18대손 김성국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01-5